

KAIST OVEREDGE · 대전 고급반 E-02 · 김정훈 (Multi-turn Inc.)

AI 메모리에 돈이 몰리고 있다. 여기서 살아남는 법.

forget — 에이전트의 상태(기억) 인프라.

골리앗들이 진입한 시장에서 1인 회사의 생존 공식, 그리고 라이브 데모.

왜 저인가 — 이 문제를 몸으로 앓았습니다

AI 메모리 서비스를 8개월 운영하고, 직접 열어봤다

- 이전 제품(호스티드 메모리 서비스)을 만들어 **제가 매일 썼습니**
다 — 이 시장의 사용자이자 운영자
- 어느 날 스토어를 열어보니 **기억 106개 중 진짜는 13개** —
88%가 뉴스 조각·필러·봇 흔적
- 그날 배운 것: 이 시장의 진짜 문제는 "더 기억하기"가 아니라
"무엇을 기억하지 않을 것인가"

88%

직접 운영한 스토어의 쓰레기 비율 — 창업 아이템이 된 발견

매일

지금도 자사 제품 위에서 일합니다 — 오늘 이 발표 준비도 forget이 기억하고
있음

그래서 이름이 forget입니다 — 잘 잊는 것이 좋은 기억의 조건이라서

시장 — 지난 12개월, 이 판에 무슨 일이

에이전트 기억은 지금 **가장 뜨거운 인프라 레이어**다

\$24M

Mem0 시리즈 A (YC S24) — 메모리 API 단독으로

Meta

Rewind → Limitless → Meta
인수 (2025.12) — 개인 기억 자산화

GA

AWS AgentCore · Vertex
Memory Bank — 하이퍼스케일
러 공식 진입

4%

GitHub 전체 커밋 중 Claude
Code 작성분 — 에이전트가 이미
노동력

골리앗의 진입은 위협이 아니라 **시장 검증**이다. 문제는 하나 — 그들 사이에서 **어디에 서야 살아남는가.**

SaaS 좌석 과금이 침식되는 동안, 에이전트가 소비하는 원시 자원(실행·신원·결제·상태)의 지출은 폭증 중

왜 지금 — 포스트-SaaS의 구조 변화

에이전트는 좌석을 사지 않는다. API를 호출한다

-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즉석에서 만드는 시대 — **앱은 일회용**이 되어감
- 일회용 앱들 사이에서 **연속성을 줬 것이 기억** — 앱이 싸질수록 상태는 비싸짐
- 과금도 이동: 좌석(seat) → **사용량(per-op)** — 인프라만 살아남는 과금 구조

죽지 않는 원시 자원 4개

실행(샌드박스) · 신원 · 결제 · **상태(기억)**

— 우리는 넷 중 하나를 골랐고, 소거법으로도 맞는 자리

플랫폼 전환기

Oracle←미니컴퓨터 · MySQL←웹 · Snowflake←클라우드. 인프라는 파도를 만들지 않는다 — 파도의 부품이 된다. 우리 파도는 에이전트

기회 — 전부가 놓치고 있는 자리

모두 "더 많이 기억하기"를 판다. 아무도 팔지 않는 것이 세 개 있다

"우리도 못 본다"

E2EE — 클라우드 사업자는 자기 서버가 읽어야 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. AI 대화가 법정에서 압수된 판례(美 2026.2)가 수요를 만드는 중

"지웠음을 증명한다"

삭제 증명·접근 감사 — 의료·법률·금융 에이전트의 법적 요건. 규제가 지불을 강제하는 유일한 구간

"도구를 넘나든다"

이식성 — 플랫폼 기억은 자사 안에 가둔다. Claude Code에 말한 걸 Cursor가 기억하는 건 중립 부품만 가능

공통점: 셋 다 골리앗이 "안 하는" 게 아니라 "못 하는" 것 — 사업 구조가 막고 있음

제품 — forget.sh

60초 설치, 모든 AI 도구가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

```
pip install forget-ai[server]
npx forget-connect # 60초, 4개 클라이언트

$ forget demo . "결제를 왜 Paddle로 정했지?"
A: 7월 13일 KYB 심사 통과로 확정 —
    글로벌 부가세 대행이 결정 이유
    [decision · 2026-07-13] ← 근거
```

SQLite 파일 하나 · 로컬 퍼스트 · 오프라인 완전 동작 · 서버 원가 0

- **한 번 말하면 끝** — Claude Code에 말한 결정을 Cursor·Codex가 기억
- **저장 버튼이 없다** — 대화·git에서 자동 축적, 쓰레기는 걸러냄
- 모든 답에 **근거(커밋·날짜)** — "왜?"에 출처로 답함
- 회사 A/B **기억 격리** — 세션마다 여는 서랍이 다름
- 오픈소스 + MCP 표준 — **어느 에이전트에든 꽂히는 부품**

LIVE DEMO · 약 10분

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

1

기억은 저절로 쌓인다 — 지금 이 순간에도

상태줄의 기억 카운터 · 오늘 대화에서 자동으로 잡힌 결정들

2

도구를 건너 기억한다

Claude Code에 말한 결정 → 완전히 새로운 세션이 근거와 함께 답함

3

처음 보는 코드베이스에도 "왜?"라고 물을 수 있다

남의 오픈소스 리포(redis)에서 설계 결정을 근거 커밋과 함께 소환

경쟁 — 정면으로 보겠습니다

골리앗 셋, 그리고 우리가 서는 자리

진영	그들이 파는 것	우리의 비대칭
하이퍼스케일러 AWS·Google	플랫폼 통합의 편의 — 자사 클라우드 안에서 완결	"우리도 못 본다" — E2EE·삭제 증명은 그들의 사업 구조가 금지
메모리 SaaS Mem0·Zep	클라우드 메모리 API — 편하지만 평문이 그들 서버에	로컬 퍼스트 + 이식성 — 그리고 서버 원가 0 이라 가격으로도 못 쫓아옴
모델 내장 기억 ChatGPT 메모리 등	계정 하나 = 기억 한 통, 자사 도구 안에 가둠	도구 횡단 + 맥락 격리 (회사 A/B) — 구조적으로 못 따라옴
forget	중립·로컬·오픈소스 부품 — 어느 진영의 에이전트에든 꽃히고, 어느 진영도 못 파는 세 가지(비공개·증명·이식)를 판다	

생존 — 인프라 역사가 검증한 공식

살아남은 인프라는 전부 **같은 문**으로 들어갔다

진입로	선례	우리
① 대형 고객 1곳	Oracle ← CIA	규제 산업 1곳 — 병행 (명세서가 목적)
② 개발 자 기본 값	MySQL·Redis·Mongo	주 경로 — OSS+60초 설치로 "에이전트 만드는 사람의 반사신경"
③ 자본 + 영업	Snowflake	우리 체급 아님 — 소거

- 기본값 게임은 **자본 싸움이 아니라 습관 싸움** — 1인 회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링
- 무료 개발자층 = 유통 부대 — 그들이 다니는 회사가 나중에 유료 버전을 삼
- 고정비 월 수십만 원 — **낮은 번레이트가 곧 해자**: 파도가 늦어도 판에 남는 자가 이김

수익 — 무료로 깔리고, 세 가지를 판다

Postgres 각본: 기본값이 된 뒤의 3층 수익



첫 유료 — 두 갈래를 동시에

개발팀에게는 습관을, 규제 산업에게는 증명을

주 경로 · 개발팀 (L1)

무료로 쓰던 개발자가 팀에 전파 → 팀 공유 기억 + 암호화 동기화가 유료

지불 논리: 시니어가 온보딩 "이거 왜 이렇게 했지?" 대응에 쓰는 시간
= 월 수십만 원. 우리 가격은 그 10분의 1

측정: waitlist 가동 중 → 9월 결제 오픈 → 전환율이 답

병행 경로 · 규제 산업 (L2)

의료·법률·금융의 에이전트 팀 — 기억의 보존·삭제·감사가 법적 요건
이라 하이퍼스케일러 기본 기억을 못 씀

당장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요구사항 명세서 1건 — Oracle의 첫 고객이 CIA였던 이유와 같음. 시장이 로드맵을 대신 써주게 한다

현재 — 아이디어 단계가 아닙니다

제품·유통·결제가 **전부 실물로** 서 있다

- **forget.sh 라이브** — 랜딩·waitlist·에이전트용 설치 문서 (llms.txt)
- 엔진 완성 — 오픈소스 공개 대기 (7/27 런칭), 암호화 모듈 구현 완료
- 국제 벤치마크 상위권 + 논문 2편 파이프라인 — **기술 신뢰 = 유통 자산**

- **1인 + AI 에이전트 조직** — 연구·개발·마케팅 병렬 가동. 이 운영 구조 자체가 "에이전트 시대" 실증
- 방금 보신 데모가 제 실제 업무 환경 — **창업자 = 해비 유저**
- 정직하게: 유료 고객 0 · 고객 인터뷰 진행 전 — 그래서 다음 90일이 판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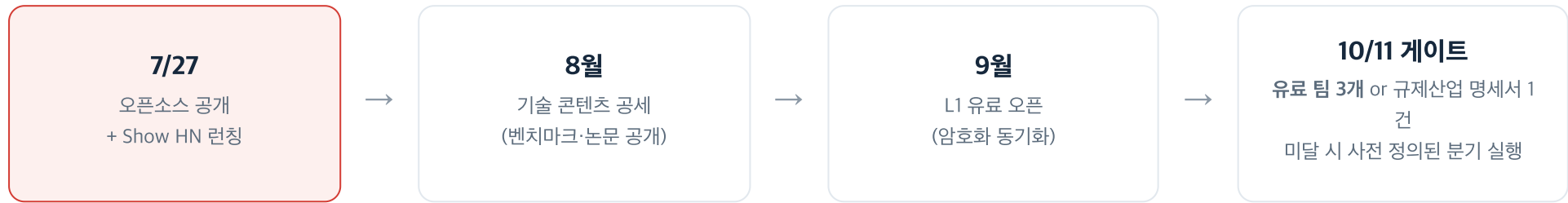
리스크 — 미리 답해두겠습니다

이 사업이 죽는 방법 4가지, 그리고 각각의 대응

사인(死因)	내용	대응
① 무명 (확률 최고)	경쟁에 져서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서 죽음	기술 콘텐츠·오픈소스·벤치마크가 유통 기계 — 주간 단일 지표: 모르는 사람의 설치 수
② 흡수	플랫폼·모델이 기억을 내장해버림	신뢰 상품(증명·감사)은 기억이 어디에 살든 필요 — 레이어 독립 자산
③ 시간 초과	지불 수요가 오기 전에 산소 고갈	고정비 최소 구조 — 오래 버티기가 전략인 체급
④ 1인의 한계	전선 분산으로 어느 것도 임계점 못 넘김	에이전트 조직으로 병렬화 + 90일 게이트가 선택지를 강제로 좁힘

다음 90일 — 판정 기준을 먼저 박아놔습니다

10월 11일, 시장이 답하게 한다



돈이 몰리는 시장에서 1인 회사의 생존 공식 — **골리앗이 못 파는 것을 팔고, 골리앗보다 오래 버틴다.**